# 여성들의 2014 패션 로망 '전지현처럼'

## 스타일 리포트

### 드라마 '별그대' 천송이 패션 열풍

**극중 입고 나온 명품·신상 아이템 인기 폭발**
**케이프에서 야상 점퍼까지 다양한 유행 창출**
**코트 한 벌 소형차 가격…홈웨어도 수백만원**

'전지현을 보면 2014년 패션 트렌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톱스타 천송이를 연기하고 있는 전지현이 마치 방금 런웨이에서 내려온 것처럼 최신 상품만을 걸친 맵시를 드러내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전지현의 패션 아이템에 대한 문의와 정보로 도배되고, 이는 곧바로 브랜드의 매출로 이어진다. 심지어 방송 뒤 2~3일이 지나면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의류 매장에는 '전지현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일명 '짝퉁 패션'이 등장하기도 한다.

전지현이 다음 회차에 어떤 브랜드를 입고 나올지가 패션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정도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전지현에게 의류를 협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후문이다.

'별에서 온 그대'는 이 같은 극중 전지현의 고가 의상 때문에 때로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많은 시청자는 여전히 전지현의 패션 스타일을 바라보는 쏠쏠한 재미를 누리고 있다.

**●패션 매거진 보듯…눈요기나 실컷**

이보다 더 화려할 순 없다.

극중 톱스타 캐릭터답게 전지현은 한 회에 적게는 7벌, 많게는 15벌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걸어 다니는 패션 매거진' '전지현 명품관'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제작진은 아직 국내에 선보이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공수해오는 것은 기본이고,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를 전지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한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뷔통, 랑방, 프라다, 구찌, 버버리프로섬 등 브랜드는 전지현의 몸에 '척척' 걸쳐져 모델의 뺨을 치게 한다. 전지현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독특한 패션 스타일도 거침없이 소화해내며 '느낌 아는 듯' 멋스러움을 과시한다.

극중 집 밖에서는 시크하고 화려한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투피스나 긴 코트 등으로 여배우만의 도도한 스타일을 강조한다. 집안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유니크한 패턴이나 파스텔 컬러 위주로 편한 느낌을 줬다.

특히 극중 유령 연예인 대학생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강의를 들으러 갈 때 입었던 셀린느의 타탄체크 코트를 비롯해 폴스미스의 흰색 오버사이즈 코트는 유독 눈길을 끌며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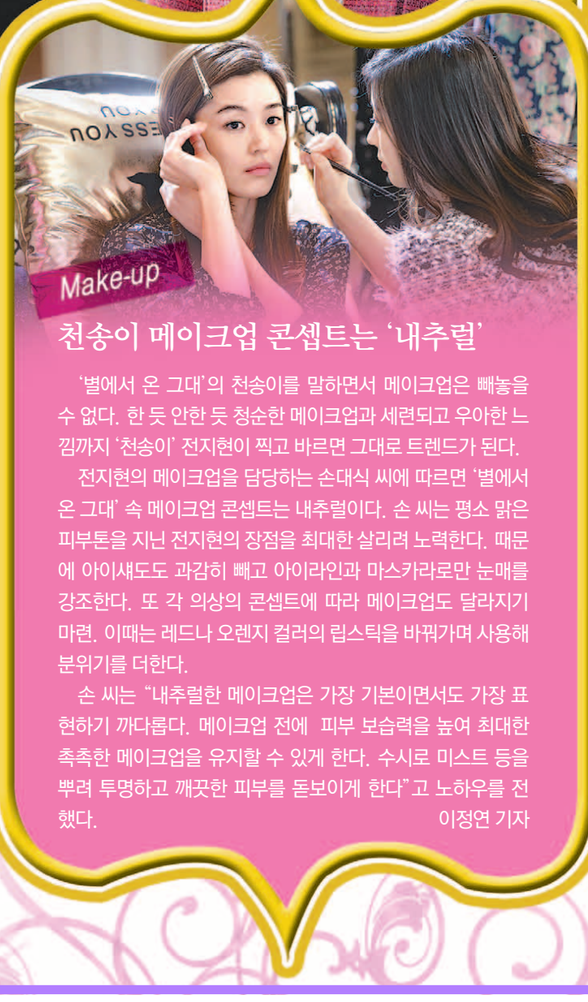
2~3년 전 유행했던 망토(케이프) 패션도 전지현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송분에서 걸친 빨간색 체크무늬의 루이뷔통 케이프와 머리부터 무릎까지 덮을 수 있는 짙은 갈색의 에르메스 케이프가 여성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 김수현과 눈밭에서 키스를 나누며 더욱 낭만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했던 야상 점퍼도 인기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지현이 극중 집안에서 입는 일상적인 홈웨어도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점이다. 코트 하나 가격도 웬만한 소형차의 가격을 뛰어넘고, 첫 회에 소화한 옷들만 계산해도 수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별에서 온 그대'는 이제 27일 종영까지 4회 남겨둔 상황. 극중 전지현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과 스타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전지현의 의상과 신발, 액세서리는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일이다. 전지현의 스타일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사진제공 | HB엔터테인먼트




### 천송이 메이크업 콘셉트는 '내추럴'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를 말하면서 메이크업은 빼놓을 수 없다. 한 듯 안한 듯 청순한 메이크업과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까지 '천송이' 전지현이 찍고 바르면 그대로 트렌드가 된다.

전지현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손대식 씨에 따르면 '별에서 온 그대' 속 메이크업 콘셉트는 내추럴이다. 손 씨는 평소 맑은 피부톤을 지닌 전지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한다. 때문에 아이섀도도 과감히 빼고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만 눈매를 강조한다. 또 각 의상의 콘셉트에 따라 메이크업도 달라지기 마련. 이때는 레드나 오렌지 컬러의 립스틱을 바꿔가며 사용해 분위기를 더한다.

손 씨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표현하기 까다롭다. 메이크업 전에  피부 보습력을 높여 최대한 촉촉한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수시로 미스트 등을 뿌려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를 돋보이게 한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이정연 기자

2014 매일경제선정 100대 프랜차이즈
오피스넥스 사무용품전문몰

## 연예뉴스 스테이션

### 연기자 심은경·그룹 B1A4 진영 '프리허그 이벤트'

연기자 심은경(사진)과 그룹 B1A4의 진영이 2000여 팬들을 만났다. 두 사람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무대에서 팬들과 프리허그 이벤트를 펼쳤다. '수상한 그녀'의 주연배우인 심은경은 이날 영화의 600만 관객 돌파와 흥행을 기념하며 진영과 함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대를 가졌다. 앞서 심은경은 '수상한 그녀'가 500만 관객을 넘어서면 '꽃할매' 의상을 입고 진영과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최민식·서경덕 교수 '이순신 통한 한국 알리기' 나서

영화 '명량, 회오리바다'의 주연배우 최민식과 연출자 김한민 감독이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제2탄 '성웅 이순신'을 통해 한국 알리기에 앞장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로 30미터, 세로 50미터의 대형 천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직접 써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 4월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다음 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및 미국 등을 돌며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해 '난중일기'와 함께 한글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진아, 비 이어 이번엔 걸스데이와 협업 무대

가수 태진아가 후배 가수와 또 한 번 협업을 성사시켰다. 태진아는 13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걸스데이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히트곡 '옥경이'를 함께 불렀다. 이날 오전부터 리허설과 사전 녹화로 호흡을 맞춘 태진아와 걸스데이는 협업을 기념하는 '인증샷'을 촬영하며 선배와 후배간의 우애를 다졌다. 앞서 태진아는 1월 가수 비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비진아'를 결성해 비의 노래 '라 송' 무대를 꾸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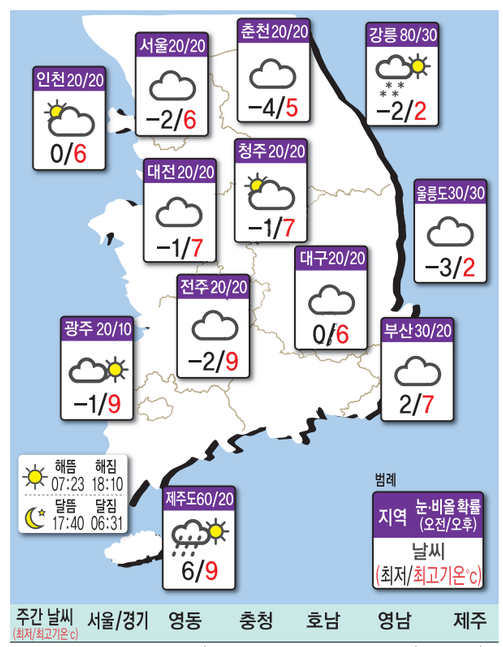
### 고 박용하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배우 고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 오늘의 날씨

2월 14일 금요일 (음력 1월 15일)




|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c) | 서울/경기 | 영동 | 충청 | 호남 | 영남 | 제주 |
|---|---|---|---|---|---|---|
| 15일(토) | -3/7 | -4/7 | -2/8 | -3/10 | 1/8 | 4/9 |
| 16일(일) | -3/6 | -5/5 | -2/9 | -3/11 | -1/10 | 3/10 |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인쇄인 최맹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양성동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레저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
사업국 02 2020 1038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